

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

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

e0266374f3ce1e28d89f651ea0dbd831fb26d42ab8ba03c9c6c560afbc1d741a

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

- 주요 뉴스: 미국 8월 경제활동, 델타 변이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큰 폭 둔화
 - IMF 총재, 6500억달러 규모의 특별대출권이 세계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
 - 미국 식품의약국(FDA), 화이자의 코로나 19 백신을 정식 승인
 - 독일 중앙은행, 금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백신 접종 가속화 기대와 통화정책 전망 등이 영향

주가 상승[+0.9%], 달러화 약세[-0.6%],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과 접종 확대 전망 등이 견인
유로 Stoxx 600 지수는 원자재 관련주의 강세 등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가능성 등이 배경
독일은 주가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2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69.3원, -4.8원) 0.4% 하락, 한국 CDS 보합

		8/23일	8/20일	전일대비			8/23일	8/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479.5	4,441.7	0.85%	국채 금리 10y	미국	1.25%	1.26%	-1bp
	유럽	471.88	468.80	0.66%		독일	-0.48%	-0.50%	2bp
	중국	3,477.1	3,427.3	1.45%	CDS 5y	한국	18bp	18bp	0bp
	일본	27,494	27,013	1.78%		중국	35bp	35bp	0bp
	한국	3,090.2	3,060.5	0.97%	위험 지표	EMBI+	-	366	-
환율	달러지수	92.99	93.50	-0.55%		VIX	17.15	18.56	-7.60%
	유로화	1.1745	1.1698	0.40%		WTI유	65.64	62.32	5.33%
	엔화	109.70	109.78	0.07%	원자재	구리	422.2	413.7	2.05%
	위안화	6.4816	6.5015	0.31%		금	1,805.4	1,781.1	1.37%
	원화	1,173.7	1,179.6	0.50%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8월 경제활동, 델타 변이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큰 폭 둔화

- IHS 마킷에 따르면 미국의 8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는 63.4, 59.9를 기록하여 각각 4개월, 8개월래 최저 수준. Chris Williamson 이코노미스트는 델타 변이 확산이 대면 서비스 등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
- 다수의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고, Apple 등의 기업은 직원들의 사무실 근무를 9월로 연기. 또한 공급망 차질과 필요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물가상승 여건을 조성
- 이에 일부에서는 하반기 성장이 둔화되어, 연준 위원들의 2021년 성장률 컨센서스(7%)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또한 최근 경기둔화 신호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테이퍼링 경로에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증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총재, 6500억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이 세계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대규모 특별인출권을 회원국에 제공하여 각 정부가 고비용의 대내외 자금조달에 의존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 이러한 노력은 향후 세계경제 전망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이러한 IMF의 지원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경제 개혁을 늦추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

■ 미국 식품의약국(FDA), 화이자의 코로나 19 백신을 정식 승인

- 재닛 우드콧 국장대행은 화이자의 백신은 FDA가 정식 승인한 첫 코로나 19 백신으로 해당 백신의 안정성, 효과, 제조 품질 등에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

■ MKM Partners,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 파월 의장의 예상 외 발언은 없을 전망

- Michael Darda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의장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테이퍼링 관련하여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발표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

■ 독일 중앙은행, 금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

-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가을 경기에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 특히 최근 경제 반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다만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 코로나 19 관련 제한조치들이 이전보다 완화될 수 있다고 예상

■ 중국 상무부장, 2022년 대외무역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왕 원타오 부장은 코로나 19와 관련된 긍정적 영향들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 금년 하반기 이미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당국은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경제 변동성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인도, 향후 4년 간 81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자산 매각을 계획

- 당국은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방침.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가스 배관 등이 매각 대상에 포함될 전망. 이번 계획은 모디 총리가 추진하는 민영화와 전략적 자산매각 프로그램의 일부에 해당

■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델타 변이를 대비한 통화정책은 불필요

- Yuong H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 상황에서 델타 변이가 기존 경제 전망과 평가를 완전히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 다만 델타 변이의 확산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진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8/2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기존주택판매(만채,연환산): 599, 6월(587), 예상치(581)
- 미국 7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0.53, 6월(-0.01), 예상치(-)
- 유로존 8월 마켓 종합 PMI(속보치): 59.5, 7(60.2), 예상치(59.7)
- 유로존 8월 소비자신뢰: -5.3, 7월(-4.4), 예상치(-5)

■ 주요 경제 이벤트(8/24 현지시각 기준)

- ECB 슈나벨 이사 강연, 미국 8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 미국 7월 신규주택판매, 독일 2/4분기 성장률, 뉴질랜드 2/4분기 소매매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파월의장, 잭슨 홀 미팅에서 명확하게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 - Financial Times

(Powell must be bold on policy at Jackson Hole)

- 연준의 이중책무 측면에서 볼 때 고용개선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미 높아진 물가 수준과 델타변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악화 등을 고려 시 인플레이 압력 가중 예상. 펀더멘탈과 괴리된 위험자산 가격 급등세로 시장안정성 악화 우려도 고조
- 이에 따라 일부 연준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조기 테이퍼링을 지지하고 있으나 파월의장, 클라리다 부의장,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 등은 아직까지 통화완화에 우호적인 입장 유지
- 언제, 어떻게 이례적인 부양책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 파월의장이 구체적 생각을 밝히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준 내부 합의를 이끄는 데 난항을 자초하고 향후 정책정상화 과정에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이어질 소지

■ 미국 달러화, 최고의 통화 지위는 인정하나 가치는 고평가 판단 - 블룸버그

(The U.S. Dollar Is King But It Commands Too High a Premium)

- 미국 달러화는 3/4분기 델타변이 전세계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와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고조 등으로 강세가 진행 중. 하지만 글로벌 주요국 대비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현격히 높은 편으로 달러화 상승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존재
- 아울러 델타 변이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경기부양책 축소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 점진적 테이퍼링의 경우도 연준 대차대조표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과 1.23%의 낮은 미국채 10년물 금리 수준 또한 달러화의 높은 프리미엄을 설명하기에 역부족

■ ECB의 중장기 금리인상 전망, 인플레이션 전망 감안 시 과도 - 블룸버그

(ECB Rate Hike Bets Are Losing Out to Still-Dim Inflation Outlook)

■ 각국 중앙은행, 사회·정치적 요구보다는 경제·독립적 판단이 중요 - 블룸버그

(Central Banks Are Risking Their Independenc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